

내년도 동력 위해 잔걸음

익산시,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사업별 전략 구축

올해 사상 첫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익산시가 중앙부처 예산편성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21일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현을 시장과 국·소·단장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난 4월 8일 세종사에서 국가예산 현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로 정 시장을 필두로 간부와 직원들이 익산과 세종을 수없이 오가며 부처 방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보고회는 그간 부처 방문 활동을 토대로 미온적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세우고, 긍정적 사업도 타당성을 세밀하게 보강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이날 말까지 중앙부처 방문과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난 4월 8일 세종사에서 국가예산 현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로 정 시장을 필두로 간부와 직원들이 익산과 세종을 수없이 오가며 부처 방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해 위협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시는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촘촘히 보강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오는 23일 하전 부시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24일에는 22대 지역국회 당선인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 회에서 국가 예산확보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주요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백제왕도 익산 시티투어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시티투어 이용자 급증

순환형·테마형 비롯 종교·정원·축제 등 연계 상품 운영

백제왕도 익산 시티투어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운영을 재개한 시티투어는 올해 6,000여 명이 이용하며 익산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인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접은 시티투어를 이용해 익산만의 색(色)을 더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익산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순환형 시티투어와 예약제인 테마형 시티투어를 비롯해 종교 성지, 정원,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순환형·테마형 시티투어는 익산 관광 명소 곳곳을 둘러볼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이 익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는 점에서 시는 최신 유행에 맞는 관광상품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불교총부, 내바위성당, 두동고회, 미륵사지를 방문하는 '4대 종교 성지 시티투어'와 왕궁포레스트, 아가페정원을 연계한 '정원 시티투어' 등 체험형 상품을 운영해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익산 문화유산 여행(夜行), 서동축제 등 대표 축제를 연계한 '별밤 여행'은 백제왕도 익산의 문화유산과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알리며 조기 마감되는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특히 백반 여행과 별밤 여행은 관광지와의 중식(백반 여행) 및 석식(별밤 여행)을 결합한 상품으로, 지역 식당과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

시 공무원 300여명 대상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강의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방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탄탄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기화발전특구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의에는 국·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을 위하여 군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로서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오늘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위하여 군산시민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여성친화 디아로움 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며 구직 활동 돕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21일 청년시장에서 경력단절·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친화 디아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캡티브로잉기술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채용관 △특강관 △부대행사관으로 운영됐으며, 현장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여성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용관에서는 식품·바이오·제조·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 30개사가 참여해, 130여 명 채용을 목표로 맞춤형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특강관에서는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과 교수이자 방음인인 신계숙 요리연구가가 '도전하는 기쁨, 신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여성유망직업인 캘리그래피부터 이력서 사진촬영, 지문인성 검사, 캐리커처, 타로카드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익산 청년시장 입주기업이자 여성 창업기업인 '월마일워터' (대표 최정인)와 '금은빵' (대표 장민지)이 플래마켓 부스에서 차류와 빵류 등을 선보여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람회 참여한 한 기업관계자는 "면접을 진행한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소통 능력과 업무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 꼭 채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취업박람회 참가자들에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에 나섰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자인 공공승마장 확장사업 부지와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를 방문했다. 공공승마장 확장사업은 경기용 마사설치를 통해 향후 승마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사업은 한열역 이전 신축에 따라 철도와 연계한 환승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기획행정위원회들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

변 시간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취득 적합성을 꼼꼼히 살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수도권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장을 찾았다. 수도권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지는 익산시 금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공원지역을 제외한 27만3,856㎡로 공원 녹지 외에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백제정원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공원 주변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올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은 수도권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계자로부터 공원 조성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상을 시찰하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내달까지 이벤트 진행

군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 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이벤트는 10만원 이상 기부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 기부자 중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3인일 상당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게 된다. 당첨자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과 더불어 원하는 답례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을 사이트 및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일 시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 업무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해외 박람회 참가 업체... 해외 통관 설명회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제18회 I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통관 설명회를 열었다. 21일 군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해외 박람회의 참가업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IA 엑스포 통관 공식 지정업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IA 엑스포 통관 공식 지정업체이자 관련분야 전문업체인 카고리쉬 최동훈 대표는 △급변하는 대미 무역 환경과 수출 동향 △농수산식품 통관제도 △실용성·무역서류 작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현지 통관 어려움, 상품별 특수한 통관 절차 등에 대한 '1:1 상담'을 통해 업체별·상품별 특성에 맞는 개별 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